

교재 만들고 온라인 강의도 도입 … 변화 꾀하는 빅문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환경’등 빅문의 과거와 현재를 짚은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미래’에 대해 짚고자 한다.

공식교재 도입 의지 모였으나

학기 초에 비해 ‘진전 없음’

이번 학기가 끝나감에 따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은 현재 크고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교재도입’과 ‘온라인 강좌의 도입’이다. 연재기사에 짚었던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교재 도입’은 빅문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빅문 강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수업마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주제도 달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보니 학생에게는 교재의 공백이 더 크게 다가왔다. 팀티칭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각 수업 간 연결고리의 부재를 ‘교재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누어 교재를 도입한다. 주교재는 학교차원에서, 부교재의 경우 빅문 교수 선에서 만들어지며 전체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주교재는 현재 빅문에서 사용하는 PPT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재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원래 설계 때부터 교재를 도입하고자 했었다”며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하나의 통



〈연재 구성 및 내용〉



5화
변화하는
빅문

5화로 예정돼 있던 ‘빅문, ○○이 말한다’는 보다 나은 보도를 위해 해당 기사로 대체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합 교재를 만들려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교재 제작 상황에 관해 빅문 종괄을 맡고 있는 송재규(화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캠과 국제캠에서 원고를 수령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초 교제 제작 상황에 비해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에서 다음 학기 후반 혹은 내년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 예정에 있는 것은 ‘부교재’ 형식의 보조 자료다. 부교재의 내용과 진행현황에 대해 빅문 기획을 맡았던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이번 학기 첫 강의부터 출판사에서 와서 녹취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추후 녹취본과 강의 PPT,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모아서 책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강좌의

도입’이다. 이는 중핵과목으로서 유례없는 시도다. 빅문은 기존 중핵과의 차이 때문에 설계 때부터 온라인 강좌의 도입을 염두에 뒀다. 다만 다음 학기에 온라인 강좌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추진속도에 따라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과학교과 특성 살리고

유학생 배려하기 위해

중핵교과 첫 온라인 강좌 도입

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PD 송재규(화학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의 ‘인간의 가치탐색(인간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달리 빅문이 온라인 강의의 도입을 체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먼저 과목 특성상 온라인강좌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다. 후마 유정완 학장은 “과학교과의 특성상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이버 상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온라인 강좌가 개발되면 대외적으로도 공개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다 원활한 빅문 수강을 위해서다. 인가탑의 경우 이번 학기에 개설된 총 73개의 강좌 중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강좌가 6개이며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가 1개, 영어로 이뤄진 강좌가 1개이다. 총 8개의 강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셈이다. 그러나 빅문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래 유학생 전용강좌가 개설된 바 없어 많은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과학을 한국어로만 가르치다보니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며 “온라인 강좌를 도입하게 되어 영어 자막을 삽입해 유학생들에게 보다 원만한 강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설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 강좌의 수강생 범위에 대해서는 빅문 PD 교수진과 대학본부 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빅문 PD 교수진 측은 “내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강좌가 내국인 학생들에게 줄 학습적 측면의 이익이 더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후마와 대학본부 측은 일부 내국인 학생에게도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시험적으로 내국인 학생에게도 제공하고, 적정규모와 방식을 점차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만 vs 내국인도

온라인 강의 제공 범위는 미정

학생들 또한 온라인 강좌와 관련해 다양 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유경(언론정보학 2016) 양은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더 집중할 수 있고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편하다”며 “표면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가 아닌 만큼 유학생만 온라인 강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예지(아동가족학 2016) 양은 “온라인 강좌 수강생들은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형평성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희진(언론정보학 2016) 양 또한 “온라인 강좌가 도입된다면 수강신청도 원활해 질 것이고 온라인 강좌 수강생만큼 오프라인 강좌의 인원이 감소해 한 강좌 당 인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빅문은 그 등장만으로도 아례적이며 새로운 시도였다. 타 중핵과는 다른 운영방식, 강의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빅문은 낯설 수밖에 없다. 낯설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낯섦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지속한다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의 빅문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해 후마의 새로운 도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 2017-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2. 1학기 학생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학기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학기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7.05.17.(수) 09:00 ~ 06.20.(화)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의무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1차 신청안내

1. 장학명

국가교육근로장학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종),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4.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생 통합신청 일정과 동일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6. 안내사항

가.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 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 분야) 참여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제외

나.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 동안 2017-1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학생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간 : 2017.06.01(목) ~ 06.27(화)

2.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07.03(월) ~ 07.05(수)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회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7.06.15(목) ~ 06.29(목), (단, 06.25 ~ 06.27 제외)

※ 성적 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7.07.03(월) ~ 07.05(수)

6. 강의평가 실시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3) 회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불가)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확인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